



박서준·강하늘 첫 연기 호흡

영화 '청년경찰' 내달 9일 개봉

강하늘 입대전 마지막 촬영

"나를 정확히 할 시기 된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통했어. 대화가 잘 이어졌고. 서로 코드가 잘 맞았고 잘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힘든 장면도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준)

"촬영 전부터 두 사람이 친해져서 호흡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촬영에 들어가니 역시나 너무 잘 맞았습니다. 늘면서 찍은 것 같네요." (강하늘) 드라마 '쌈, 마이웨이'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박서준과 '동주', '재심' 등에서 진중한 연기를 선보인 강하늘이 코미디 영화로 만났다.

영화 '청년경찰'에서 첫 연기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26일 삼정동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첫 만남부터 통했다"며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마치 노는 것처럼 촬영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작품은 대본에 핵심적인 대사들만 쓰여 있어서 애드립 연기가 많이 필요한 작품이었어요. 제가 원래 애드립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두 사람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연습 없이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게 대하고 어떤 게 애드립인지 모를 정도였죠." (강하늘)

"두 사람이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감독님과 코드가 잘 맞아서 작품 자체가 즐거움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박서준)

내달 9일 개봉하는 '청년경찰'은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는 두 경찰대생이 한밤중 목격한 납치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두 캐릭터



영화 '청년경찰' 제작보고회에서 마주 보고 웃으며 이야기 하는 박서준(왼쪽)과 강하늘.

가 좌충우돌하면서 납치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빠른 속도로 유쾌하게 그려나간다.

지난 25일 시사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 작품은 무거운 역사를 다룬 시대극이 넘쳐나는 여름 극장가에서 가볍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코믹 액션 영화로 호평받았다.

강하늘은 "대작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고 관객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박서준은 "같은 시기에 여러 장르의 영화가 개봉해 많은 불거리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 또래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많지 않은데 이번 영화가 잘 돼서 앞으로 이런 버디 무비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관객이 얼마나 들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손익분기점인 200만 명만 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작년 11월부터 3개월의 촬영 기간 연기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이 느낀 상대방의 장점은 무엇일까?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서준이 형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강하늘) "하늘이는 어딜 가나 잘 융화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임하는 자세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서준)

현병대에 지원해 오는 9월 11일 입대하는 강하늘은 이번 영화 홍보가 입대 전 마지막 활동이다.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입대한다"는 말에 그는 "나를 정확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전부터 내 안에서 욕심이 굉장히 커질 때쯤 그럴 정리하기 위해 군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욕심이나 조바심,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많이 휘청휘청할 것 같거든요. 나를 정확히 할 수 있을 타이밍에 가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는 "9월 입대하지만 이미 촬영을 마친 장항준 감독의 '기억의 밤'이 올해 말 개봉할 예정"이라며 "군대 생활이 걱정된다기보다는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들이 또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연예뉴스

스타에게 SNS는 소통? 논란의 불씨?

구하라, 담배사진 게재 논란

설리·가인 등도 구설 곤혹

노출·연인·대마초 의혹 빈번

대중의 관심이 높은 스타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매년 인터넷에서 논란을 만들어낸다. 이번엔 가수 겸 배우 구하라(26)다.

구하라가 26일 새벽 담배처럼 보이는 물건은 손바닥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과 함께 '이것 신맛 난다. 맛이 있다'란 글을 올리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급기야 누리꾼들이 '필터가 있는 담배와 다르게 생겼다'면서 마약류인 '대마초'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구하라는 이를 과일 사진으로 대체한 뒤 다시 SNS에 "틀린 터바코입니다.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라는 해명성 글을 올렸다.

구하라와 연예계 접점으로 잘 알려진 설리와 가인도 SNS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의 중심에 서곤 했다. 설리는 연인과의 사진을 거침없이 공개했고, 노출 사진과 애완묘와 함께 한 영상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가인도 당시 연인이던 배우 주지훈의 지

인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폭로성 글을 올리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지목된 남성은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스타들의 SNS는 팬들을 비롯한 대중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때론 부적절한 글과 사진이 예상하지 못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소속사 등 주변에 대한 불만 표출로 여러 '설'을 낳았다. SNS 논란이 빈번하자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생겨났다.

(대한국매니지먼트연합 김병선 홍보이사) "SNS가 1인 미디어가 된 시대여서 스타가 대중과 소통할 때는 자신의 가치관과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며 "글 하나로 칭찬과 비난의 기로에 서니 사회적인 통념이나 예민한 영역 등 자신의 생각을 공개할 때는 책임감이 한층 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사들도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SNS를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허재욱 팀장은 "연습생 때부터 SNS 활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논란의 소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언을 할 뿐이다"며 "팬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예뉴스

서현진·양세종, SBS '사랑의 온도' 호흡

연상연하 커플 연기

배우 서현진(32)과 양세종(25)이 SBS TV 새 월화극 '사랑의 온도'에서 연상연하연하 커플로 호흡을 맞춘다.

두 배우가 '조작' 후속으로 방송될 '사랑의 온도'의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홍보사 블리스미디어가 26일 밝혔다.

올초 '남반달터 김사부'에서 의사 선우배로 만났던 서현진과 양세종은 '사랑의 온도'에서는 멜로 호흡을 맞출게 된다.

'닥터스' '상류사회' 등으로 사랑받은 허명희 작가의 신작인 '사랑의 온도'는 6살의 나이차가 있는 연상녀와 연하남의 사랑 이야기다.

2014년 허 작가가 쓴 첫 장편 소설 '작한



서현진 양세종

스프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를 드라마로 각색한 작품이다. 서현진은 10년간 보조작가 생활을 거쳐 이제 막 정식 작가 데뷔를 한 이현수 역을, 양세종은 정시우 유학파 출신 셰프 온정선 역을 연기한다. /연예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ay.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Lists programs on EBS1 channel,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ntertain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section). Include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birth years with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and lucky/unlucky numbers.